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97장

1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2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3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4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써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후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추석

가정예배

순교신앙의 집
서울산정현교회

예배순서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301장** ····· **다 같 이**

기 도 ····· **맡 은 이**

성 경 봉 독 ····· **고린도후서 9:5-11** (신약 295면) ····· **다 같 이**

5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말 씀 ·····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의 열매입니다』** ····· **인 도 자**

찬 송 ····· **197장** ····· **다 같 이**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의 열매입니다 (고후 9:5-11)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온 가족의 모든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육신의 건강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학업과 진로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크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1.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의 풍성함을 준비하십시오(5-6).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자발적 연보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식구 중에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이가 있지는 않는지요. 각자가 섬기는 교회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복음이라는 하나님 사랑과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것을 기쁘게 연보로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곳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2.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동역의 기쁨을 사모하십시오(7-8).

이 편지를 받아 보는 모든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 사역의 동참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집니다. 그는 7절에서 성도들을 결코 억지가 아니라 즐겨 내는 하나님의 사역 동역자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십니다. 바울의 권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 나타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은혜의 손길과 닮아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즐겨 따라가는 삶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3. 동역하는 우리에게 심은 것을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십니다(9-11).

사도 바울은 9절에서 고린도교회의 연보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해질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양식을 주시면 이들이 받은 소유를 연보로 내어드릴 때, 그것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먹이십니다. 이들의 연보가 다시 고린도 성도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그렇게 맺히는 열매를 '의의 열매'라고 말씀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를 열매로 받는 삶이라 약속해주십니다.

결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에는 "하나님 나라"를 열매로 주십니다.

어느 때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한가위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예기치 않은 절망과 슬픔을 마주한 이들이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지구촌의 영혼들을 위해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에 동참하며 의의 열매를 사모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